

공공의 이익

태국에서 에이즈치료제 강제실시를 이뤄냈던 경험을 반추

- 국제 단체들의 많은 지원
- 비교적 민주적이지 않았던 정치구조
- 미국과의 특수관계... 실제 미국은 3번의 무역제제를 실시함.

(하지만 잠깐 수출이 줄었을 뿐,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줄지 않았음, 하지만 수만명의 감염인 환자의 건강을 가져왔음. 물론 이를 비교하기는 힘듦.)

- 태국의 보건당국 관료들의 특수성... (공공의료현장에서 실제 에이즈환자를 겪었던 이들..)

이러한 차이들이 태국의 강제실시를 가능하게 했음.

이윤보다 생명을? 매력적인 문구인가??

상품으로서 의약품... 창렬스럽다! 하지만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어.

자본으로서 의약품... 투자에 따른 대가는 당연해! 혁신은 바람직해!

+ 신약은 너에게 구원이야!(매직 블릿!!)

공공재로서 의약품... 의약품도 다른 상품처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

다국적 제약사의 동정적인 프로그램 (인도주의적 프로그램?)

단순히 이윤추구의 제약회사는 아님. 복합적...

의약품은 환자라면 당연히 주어져야하는 뜻인지도 몰라...

선물은 주어야할 의무, 받아야할 의무, 되돌려줘야할 의무를 동반해!

의약품이 가지는 분배정의들...